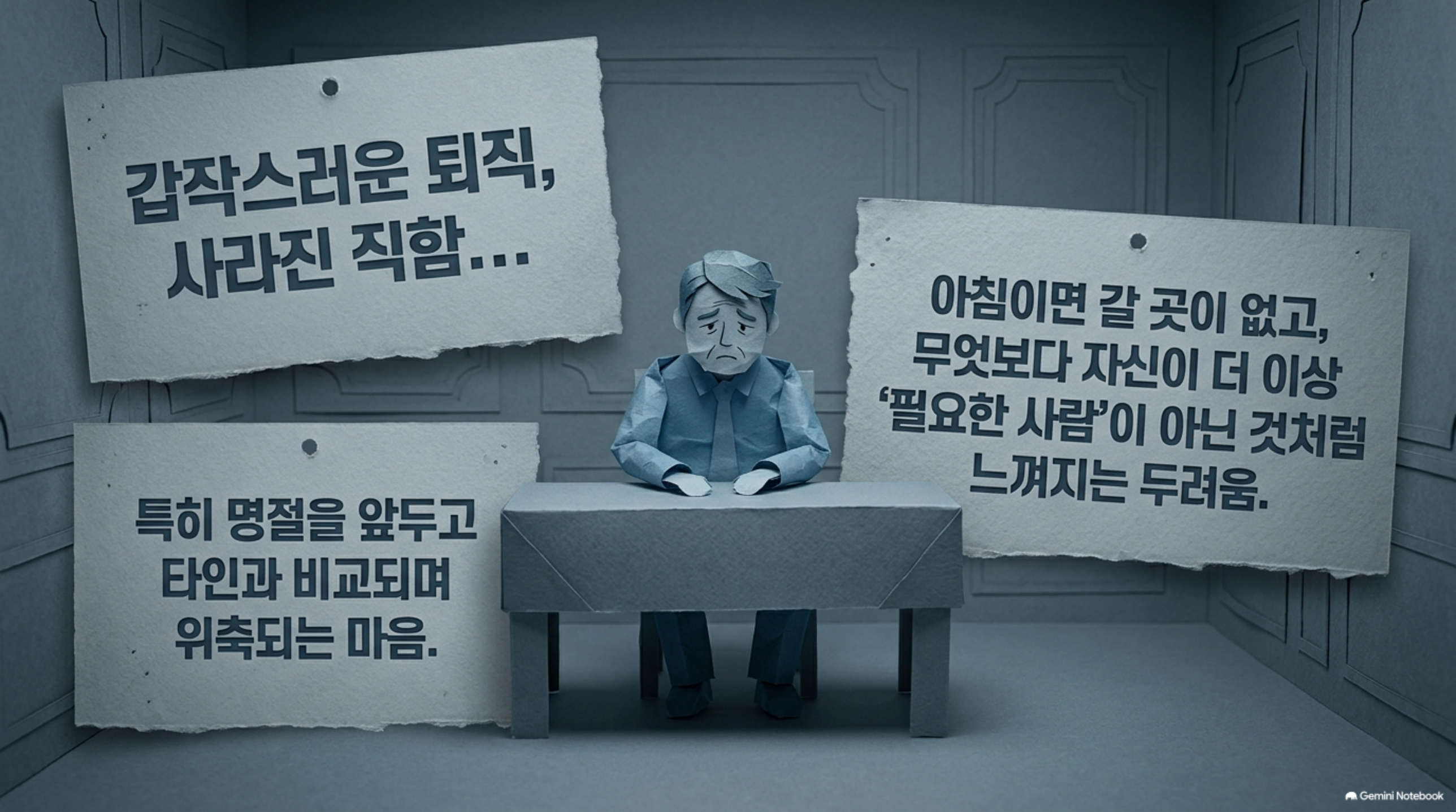


Gemini Notebook



Gemini Notebook

갑작스러운 퇴직,
사라진 직함..

특히 명절을 앞두..
타인과 비교되며
위축되는 마음.



여보, 괜찮아.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당신이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우리 가족에게는
여전히 당신이 필요해.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여전히 필요로 하고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Gemini Notebook



Gemini Notebook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 (전도서 4:9)

하나님은 인간을 독립된 섬처럼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가면 지칠 수 있기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눅 10:1).

Gemini Notebook



나와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맞물림'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곁에 붙여 주셔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십니다.

Gemini Notebook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마십시오.

가족이 베풀어 주는 사랑,
직장 동료의 도움,
말없이 기도해 주는 성도의 수고...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그 빈자리를 깨닫게 됩니다.

Gemini Notebook

둘째, 곁에 있는 사람은 넘어질 때 일으켜 주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전도서 4:10)



Gemini Notebook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갈멜산의 승리자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너졌습니다 (왕상 19장)

어제의 영웅이
오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믿음이 좋은 사람도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Gemini Notebook

세상의 방식

1



믿음이 왜 그것밖에 안 돼?

정죄

2



방치

예수님의 순서

1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잖아.

먼저 손을 내민다

2



그 다음 가르치신다

사람을 살리는 신앙은 지적보다 손을 먼저 내미는 것입니다.

Gemini Notebook

셋째,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세 겹 줄처럼 든든해집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12)

Gemini Notebook



Gemini Notebook



서로 지치고 감정이 상해
크게 다툴 것 같은 순간...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을 참아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하고 싶은 말을 멈추게 하는 힘.

Gemini Notebook



명절이 지나도 마음에 남아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복은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한 사람에게라도
먼저 연락해 보세요.**

- [x] 내가 미안했어
- [x] 고마워
- [x] 사랑해
- [x] 기도하고 있어

Gemini Notebook



Gemini Notebook